

성경 상의 구원론을 자세히 풀 수 있어야 구세주

이 세상에는 학문도 없었고 종교도 없었다고 이 사람은 20년 전서부터 이야기 하고 있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실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 세상 모든 사물이 다 신이요, 모든 사물이 하나님의 신과 마귀의 신의 병존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사람도 신이라고 성경에는 쓰여 있죠? 시편 82편 6절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쓰여 있죠? 지존자는 하나님이니 까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말이죠?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자식이요, 신의 자식이 신이지, 신의 자식이 동물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학문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바로 되어 있는 거야?

신명기서 14장 1절에도 "너희들은 여호와와 자녀니라" 그렇게 쓰여 있죠? 그러나 여호와와 자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죠? 요한서 3장 2절에도 "지금은 너희들이 여호와와 자녀니라" 그렇게 쓰여 있어요. 성경에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쓰여 있는 고로 틀림없이 사람이 하나님 자식이죠?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구세주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4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한다"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 자식인고로 구원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성경에는 여러 군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쓰여 있어요. 이사야 43장 1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그대로 이사야서 60장 1-4절에도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한다'고 쓰여 있어요. 구세주는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구약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어 당신 자식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고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가지고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말이죠?

또한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성경적인 구원론을 바로 모르고 있죠? 요한복음 3

장5절에는,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고 쓰여 있죠? 또한 창세기 3장 22절에는 생명과 과일을 먹고 영생할까봐 생명과 과일 따먹지 못하게 화염검을 돌려서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 성경에 쓰여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화염검을 돌려서 그 생명과 과일 따먹지 못하게 하였을까? 그게 다 마귀의 조작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마귀의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에 쓰여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 믿는 마음이 아니고 성령을 선물로 주게 되어 있죠? 성령은 하나님의 신인 고로 하나님의 신이 영생의 신인고로 영생의 영이 믿음이 지, 죽음의 마음이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죠? 믿는 마음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믿음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고 영생의 영이 곧 믿음이요, 영생의 영이 곧 생명과 과일요, 생명과 과일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마귀를 이기는 이간자 하나님의 영이 이것이 바로 생명과 과일요, 믿음이 되는 것이올시다.

구세주의 얼굴이 생명과 과일이다

여러분들에게 구세주의 얼굴이 생명과 과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세주의 얼굴을 초초로 바라봐라 그랬죠? 초초로 바라보고 마음속에 새기게 되면 생명과 과일을 먹었다가 된다고 그랬죠? 또한 믿음이 있다가 된다고 그랬죠? 구세주 자체가 믿음이요, 구세주 자체가 바로 이간자의 하나님의 영인 고로 믿음이 되고 생명과 과일이 되는 고로 그러고도 이제 그대로 성경적인 구원론은 하나님이 마귀를 이길 때에 비로소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마귀를 이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생명과 과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을 때에 그 마음이 천국이 되는 고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



구세주 조희삼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국은 하늘나라요, 하나님이 계시야 하늘나라인데 보통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가 될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이 계시야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고도 마귀가 있는 마음은 천국이 될 수가 없죠? 그 마귀를 죽이고 마귀를 없애버린 이간자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있을 때에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이간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쓰여 있죠?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지요? 그러고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 고로 성전 자체가 천국인 거죠? 그러고도 이간자가 있어야 천국이 이루어지지, 이간자가 없으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이간자가 이 제단에 있으면 이 제단이 뭐야? 천국이요? 천국의 정의도 모르고 지옥의 정의도 모르는 것이 그게 종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죄가 뭘 줄도 모르면서 그게 종교가 될 수 있겠어요? 죄라는 건 분명히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욕심 자체가 죄요, 죄 자체가 사망이라고 쓰여 있는 고로 욕심 자체

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니고 나라는 의식이 욕심을 부리는 고로 욕심 자체가 죄이니 까 죄의 뿌리는 나라는 의식이 되는 거죠? 나라는 의식이 원죄가 되는 것이요. 나라는 의식이 바로 원죄이니까 원죄가 선악과이죠?

아담과 해와가 먹은 선악과가 우리에게 나라는 의식으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 우리 인간 조상이 먹은 선악과가 후손들 속에 나라는 의식 자체로 남아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그게 종교야? 나라는 것이 행하는 것은 다 죄라 고 성경은 어떻게 쓰여 있느냐하면,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내가 행하는 건 다 죄다! 이 소리로 내가 쌀 백 가미를 고아원 갖다 줬도 그게 죄야? 무슨 죄? 죽을 죄! 죽을죄야. 아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내가 행하면 죽을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서 종교를 운운하니 참말로 우습죠? 이것도 모르면서 구세주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항상 버려라'고 하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나라는 걸 왜 버려라'고 왜 했겠어! 나라는 것이 마귀 새끼니까 버려라'고 한 거야. '마귀새끼 버려라!' 이렇게 성경은 똑똑하게 쓰여 있어요. 그런가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 왜 했겠느냐? 현재 너희는 하나님 마음을 안 품고 마귀 마음 품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 말이 틀렸어요?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현재 마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더러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면 마귀 마음을 품고 천당 간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비비 종교야, 진짜 종교야? 종교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믿음의 정의도 모르고 선악과의 정의도 모르고, 이제 그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도 모르면서 어떻게 영생의 구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구원을 줄 수가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이간자라야 마귀를 이긴 영을 부여하지, 이간자가 아니고서는 마귀를 이긴 영을 부여하는 고로 욕심 자체가 죄이니 까 죄의 뿌리는 나라는 의식이 되는 거죠? 나라는 의식이 원죄가 되는 것이요. 나라는 의식이 바로 원죄이니까 원죄가 선악과이죠?

이간자라야 마귀를 이긴 영을 부여하지, 이간자가 아니고서는 마귀를 이긴 영을 부여하는 고로 욕심 자체가 죄이니 까 죄의 뿌리는 나라는 의식이 되는 거죠? 나라는 의식이 원죄가 되는 것이요. 나라는 의식이 바로 원죄이니까 원죄가 선악과이죠?

이간자라야 마귀를 이긴 영을 부여하지, 이간자가 아니고서는 마귀를 이긴 영을 부여하는 고로 욕심 자체가 죄이니 까 죄의 뿌리는 나라는 의식이 되는 거죠? 나라는 의식이 원죄가 되는 것이요. 나라는 의식이 바로 원죄이니까 원죄가 선악과이죠?

여러분들이 승리제단에 온 것은, 승리제단에서 영생의 은혜가 내리는 고로 여당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서 종교를 운운하니 참말로 우습죠? 이것도 모르면서 구세주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항상 버려라'고 하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나라는 걸 왜 버려라'고 왜 했겠어! 나라는 것이 마귀 새끼니까 버려라'고 한 거야. '마귀새끼 버려라!' 이렇게 성경은 똑똑하게 쓰여 있어요. 그런가하면, "너희는

여러분들이 승리제단에 온 것은, 승리제단에서 영생의 은혜가 내리는 고로 여당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면서 종교를 운운하니 참말로 우습죠? 이것도 모르면서 구세주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항상 버려라'고 하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나라는 걸 왜 버려라'고 왜 했겠어! 나라는 것이 마귀 새끼니까 버려라'고 한 거야. '마귀새끼 버려라!' 이렇게 성경은 똑똑하게 쓰여 있어요. 그런가하면, "너희는

이 있다는 것을 이걸 사비비 종교들은 알아, 몰라? 이것도 모르면서 종교를 운운하니 참말로 그게 한심하기 그지없죠?

마귀를 잘 속여야 이길 수 있다

마귀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하면 바로 마음속에는 나라는 의식의 마귀의 영도 병존하고 있는 거죠? 마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육천년간 지배해왔다는 그러한 마귀의 영인 고로 그 마귀의 영이 붉은 용 마귀라고 했죠? 육천년 묵은 마귀라고 했죠? 둘구름이야 아주, 죄짓는데 아주 선수야! 죄를 짓는 것을 안 본다고 해서 모르는 줄 알고 그냥 쇠철판을 깔은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대하는데,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척하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 모른척을 잘해야 마귀를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아는 척했다간 마귀를 못이겨. 아시겠어요? 마귀를 100% 속여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지, 못 속여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도 역시 신인 고로 마귀가 바로 모방력이 있는 고로 하나님을 모방을 해, 모방을 안 해? 옛날에 실패한 하나님을 모방을 잘했는데, 이간자에게는 모방을 못해! 왜 그러냐하면 100%로 완전히 밀착된 모방을 하기 때문에, 전부 100% 숨기고 있기 때문에 뭘 알아야 모방을 하지, 마귀가.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이 태풍도 못 오게 하고, 여름장마도 못 지게 하고, 해마다 풍년들게 하고, 전쟁도 못 일어나게 하고, 세계공산주의를 없앴지만 마귀가 한 눈 팔 때에 없애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모방할 수가 없어.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그 많은 것을 했는데, 왜 그걸 모방을 못했느냐? 알지 못하니까! 못 볼 때에 보지 못할 때에 눈 감고 있을 때에 마귀가 한눈팔고 있을 때에 마귀가 이제 그대로 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에- 열심히 할 때에 그때에 그 순간에 해버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2001년 2월 27일 말씀 중에서.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참성경

《6장 40년의 광야생활》

(3) 호렙산 반석을 지팡이로 치다

(3) 호렙산 반석을 지팡이로 치다

(지난호에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호렙산 반석 앞으로 불러 모아 놓고 외쳤습니다.
"반역자들이여,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해주라!" 하고, 모세는 그만 자신의 할기를 이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능력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이나 쳤습니다. 그러자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팔팔 쏟아져 나왔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가족 때가 마셨습니다.
이렇게 호렙산 반석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데, 모세는 그의 지팡이로 물을 낸 것처럼 그 기적의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는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계신 하나님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고, 마침내 마귀는 손쉽게 이말레 사람들의 심령을 점령하여 그들로 하여금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다투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 곳의 이름을 '리

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 곳의 이름을 '맛사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르비딤 반석**'에서 끊임없이 샘물이 흘러나와 시냇물을 이루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을 '가데스(Kadesh: 거룩한 샘물)'가 있는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비딤에 장막을 치고 지내고 있는데, 아말렉이 그 군대를 몰고 와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허둥대다
1 르비딤 반석(28°43'35N/35°14'10E): 르비딤 반석이라고 합니다. 르비딤 반석은 약200m 정도의 산 정상에 우뚝 서 있습니다. 호렙산(자발 알 로오즈)에서 볼 때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위의 높이는 어림잡작으로 20m도 넘어 보입니다. 바위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꼭 갈라져 있으며, 갈라진 바위틈으로 어른 할 나이로 물이 흐르 자국이 지금 까지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출처: 김승학 저 '떨기나무'에서"



현존하는 르비딤 반석(호렙산 반석 또는 모리아 반석) <https://en.wikipedia.org/wiki/Rephidim>

고 있을 때 모세는 곧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시오.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위에서 있겠소"

그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제일 높은 곳에 서 있었습니 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족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이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좌우에서 각각 붙들어 떠받치니 해가 질 때까지 그의 팔은 처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은 높이 쳐들려져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여호와 낫시' 제단

모세가 르비딤에 머물 때, 그는 그의 누님이자 여전지자인 미리암으로부터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건네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읽고 있는 두루마리는 야굽의 장자단이 구술하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받아온 것으로, 나 여호와가 행한 일을 창세 이래 아담으로부터 요셉까지 기록하였느니라. 두루마리를 이어서, 나 여호와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일과 미디안의 사막에서 만나를 내린 일과 아말렉 군대를 물리친 일을 기록하여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대대로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여야 하느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장자단의 두루마리를 계승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게 된 기념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모세가 르비딤에 세운 제단을 '여호와 낫시'라 하고, "하나님의

2 여호와 낫시(Jehovah-nissi) 제단:

깃발을 높이 들고 마귀와 싸워 영원무궁토록 이기리라."하고 외쳤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안젤라

수르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마시고 엘림으로 간 후 다시 신강야를 거쳐 르비딤에 도착하여 반석에서 물을 마신 후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는 '여호와 낫시' 단(壇)은 르비딤 반석 가까운 곳에 일부는 훼손되었으나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후 모세는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아내(십모라)와 자식들을 만난 후 다시 진행하여 시내광야의 시내산(아몬드산)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르비딤에 해당하는 지역은 자발-알-로오즈산(Jabal al Lawz; 아몬드산)의 뒤편(서쪽)에 해당하며 알 바드(이드로)에서 와디 무사(모세 계곡)를 따라 들어가면 르비딤 반석인 갈라진 반석에서 흘러 내린 물자국과 고대적 수로가 있으며 그 아래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진 곳에는 여호와 낫시단이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